

## 연쇄살인범죄의 심리적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최용석\*

### 목 차

- I. 서론
- II. 범죄의 정의와 범죄연구의 이해
- III. 범죄인의 현상에 대한 분석
- IV. 범죄인의 효율적 대책 방안
- V. 결론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연쇄살인행위가 사회각처에서 생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쇄살인범죄행위의 과정과 실태를 살펴본 후 연쇄살인행위의 동기유발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하여 예방치안정책과 범죄의 비행을 통제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범죄에 대한 주요한 억제책이라는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인간은 남녀의 구분을 막론하고 태어날 때는 선한 마음과 부모님의 심성을 닮아 꿈과 미래를 지향하는 삶의 추구, 좋은 환경속의 직업생활, 경제적 안정과 미래에 대한 성공을 희망하며 살아가고 있다(김득중, 2006: 46).

그러나 이러한 행복 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준비가 마련되지 못한 사람은 노력함을 게을리 하고 황금만능주의와 이기주의적인 경향이 자신의 순수함인 본의 심성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결국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본인의 부족함을 해소하기 위해 범죄의 유희 속으로 차츰 들어가게 되는 현상이다. 살인범죄의 조기검거 및 재발방지를 위해 수사

\* 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외래교수(전)

를 담당하고 있는 최 일선의 경찰조직은 물론 범정부치안행정적인 차원에서도 심각한 과제로 받아 들어지고 있다. 민생치안의 핵심이 되는 경찰의 중요한 수사 분야는 범죄행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중요성은 국민의 기대와 관심을 상징적인 의미에서 지대한 충족조건의 관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살인범죄 및 연쇄적 살인범죄인의 사전적인 예방과 심리적 분석을 파악하여 혹독한 처벌의 신속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수사경찰의 인력증원과 수사전문화를 위한 특별채용과 수사에 대한 비용도 선행되어야 한다.

**주제어** : 범죄의정의, 범죄인의 특성, 연쇄살인 활동분석, 연쇄살인 근절방안, 전문수사증원

## Ⅰ. 서론

형사정책학상의 직접적 대상인 범죄는 인간의 행위이며, 범죄행위가 늘 상 반복적인 혹독한 행위가 가정과 행복의 추구권을 아사가고 있다. 형법적사유 및 형사정책적 고찰은 항상 행위자인 인간을 출발점으로 하고, 범죄대상도 주로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위한 범죄에 대한 처우를 중심으로 한다. 형법상의 범죄인은 반드시 형사정책의 주체에 한하지만, 형사정책학의 대상인 범죄인은 범죄적 위험성을 가진자(반사회적 인격소유자)를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형사정책학에서는 범죄자의 연령·성별·직업·사회적계층·누범경력·인격적 특징·살아온 환경 등에 대한 문제가 된다.

지구상 현대사회의 인류가 사회를 형성하고 고속적 성장과 더불어 날로 늘어가는 살인범죄는 끊임없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들어 범죄의 광역화·기동화·무동기적 지능화 등에 의하여 우발적인 강인한 폭력으로 대낮에 강도와 성폭행·조직폭력배·칼부림사건·초중고 등 폭력행위와 강력사건 테러로 인한 인명피해 등이 국민들에게 불안한 실정이며, 민생치안정책에 구멍이 크게 뚫렸다는 지적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바로 우발적인 점도 있지만 빈익빈 부익부와 급격한 사회발전과 사회평창이 더불어 변화하는 것과 본인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사회에 대한 실제적응실패와 정신적인 스트레스 감정으로 밀접한 관계가 이어지며, 경기의 둔화상태와 실업자 증가 등으로 불

수도 있다. 이러한 범죄행위의 증가가 사회·개인 환경적 원인과 사회의 일면에서 적응치 못하고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에 대한 현실적 연구의 필요성은 절실히 현안이 되고 있다. 또한 나날이 살인범죄의 흉포화와 재발방지책을 위해서라도 범정부치안행정차원에서 완벽하고 신속한 역할을 이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정과 평온 행복의 삶, 관심의 기대에 기울려야 한다.

## II. 범죄의 정의와 연구의 이해

### 1. 범죄의 정의

범죄의 정의는 범죄학자가 불법적인행위의 원인과 그로 인한 문제의 통제를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연구 지향을 결정한다. 협의적 시각에서는 법이 범죄를 정의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동의가 있고, 법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 분배 적용되어야 한다.

범죄는 정치적으로 정의되는 개념이고 갈등적 시각에서는 법은 지배계층의 도구가 되며, 실제 범죄는 불법적이지 않으며 상호작용주의 시각에서는 도덕적 십자군이 범죄를 정의하며, 행위는 사회가 그런 식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범죄가 되고 범죄자의 낙인은 삶을 변화시키는 사건으로 정의한다(공정식, 2010: 8). 또한 살인범죄(Toetungsdelikt; homicide)란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이며, 죽음을 의미하는 불법적인 범죄적 살인행위(Criminal Homicides)가 있다(이존걸, 2000: 317).

### 2. 범죄 연구의 이해

#### 1)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적은 범죄에 관련된 신화를 바로 잡는다는 것을 연구자들이 삶에 관한 일반 상식이나 믿음, 통념, 가설 등에 도전하여 바로잡는 것을 의미한다(공정식, 2010: 14-15). 즉 ① 범죄행위에 관하여 확증된 지식을 추구하여야 하며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얻은 증거가 일반 통념과 충돌하는 통념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② 범죄학자들은

일반인들에게 범죄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들은 범죄예방 등의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범죄학자들이 치안범죄정책수립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2) 이론과 방법론

실증적 연구자의 윤리성과 객관성을 증시해야 하는 사회과학적 연구는 이론과 방법론으로 구성된다. 모든 이론들은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완벽한 범죄이론이란 있을 수 없다. 한편 방법론은 범죄의 발생량이나 범죄자의 유형분석 등 정확한 데이터와 객관적 사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만일 실증적 연구 이론이라면 탁상공론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론적 설명 없는 실증적 연구는 단순 사실들만의 집합에 불과하게 된다. 또한 범죄통계자료는 범죄대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책정하며 정책방향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따라서 범죄현상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공식범죄통계 외에도 표본 집단 조사법 등과 같은 연구방법을 추가적으로 병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치안범죄정책 연구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연구방법의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 3) 범죄의 분류

Lombroso는 범죄인을 6단계로 구분하였다. ① 생래적 범죄인: 잔악한 범죄행위를 반복하는 지는 극형에 처하고 초범일지라도 무기구금하거나 도태처분을 한다. ② 정신병적 범죄인: 정신적 결함에 의한 범행. ③ 기회범죄인(준범죄인): 경미한 생래적·퇴행성 특징(사이버 범죄인): 자신의 생존과 명예를 위한 범죄. ④ 우발성·격정성 범죄인: 흥분에 의해서 순간적 범행자로서 단기 자유형보다는 벌금형. ⑤ 관습범죄인: 환경의 영향에 의한 범행자. ⑥ 잠죄적 범죄인: 분노감, 알코올 등에 의한 범행자 등으로 구분된다(공정식, 2010: 47~48).

## 4) 범죄인의 원인

인간의 자유의지는 순수한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고 고전주의 범죄학을 비판한 적도 있다(공정식, 2010: 49). 인간의 모든 행위는 사회적·자연적·개인적 요소의 다양하고 복

잡한 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았으며, 범죄의 원인은 ① 사회적(사회 환경적)요소: 종교·인구밀도·관습·경제 및 산업조건·정부조직 요소를 제시. ② 개인적(인류학적)요소: 성·연령·신체적 조건. ③ 물리적(자연적)요소: 기후·소재지·인종·계절 및 기온 등의 3가지 요소를 제시하였고, 특히 범죄의 사회적 요소를 중시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살인범죄의 원인에 대한 외부의 사회적 환경에서 외적억제이론과 폭력의 부분화 이론으로 인한 사회 속성(sociogenic)(권혁기, 2001: 14)과, 우리들의 정신 심리학적 분석이론과 좌절 및 공격이론적인 심리속성(psychogenic)이 있으며, 인체 내부에서 유전학적 이론과 인종학적 이론으로 구분되는 생물속성(biogenic)이 있다.

### 5) 사회병리현상인 범죄

- ① 범죄포화의 법칙: 범죄 원인이 되는 사회에서 일정한 양으로 존재한다는 견해로서 이는 사회 현상으로서의 범죄를 전제한다는 것인데 그 근거는 해마다 발표되는 범죄통계상의 건수가 거의 일정하고 자연조건과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서도 변화되는 사실이 이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 ② 범죄과포화의 현상: 일정한 사회에서 물리적·사회적인 예외의 조건이 발생하면 부수적이고 반사적인 범죄들이 대폭 증가되는데, 예를 들면 강도·살인 등에 따르는 공무 집행방해, 간통에 따르는 명예훼손죄·위증죄, 절도에 따르는 장물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 6) 범죄현상의 파악

범죄자의 현상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알아야 할 문제는 모든 범죄가 실질적으로 보고되지는 않으며, 모든 범죄의 행위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며, 또한 그 중에서도 유죄로 모두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모든 범죄 사건을 인지하고 해결 되었드레도 유죄는 확정시킬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법행위의 범죄통계자료는 범죄에 대한 결정할 수 있고, 예산을 책정하는 데는 정책방향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범죄통계자료는 모든 범죄대책을 결정하고 예산과 치안정책방안에 책정하는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통계는 범죄사건을 공식적으로 전부 기록하지 않으

며, 많은 범죄가 관서에 신고나 정확히 인지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공식범죄통계에서는 범죄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조사집단 조사법 등과 같은 곳에서도 추가적으로 연구방법을 병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 3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에는 ① 자유에 대한 죄(협박죄, 강간과 추행의 죄, 악취유인죄, 체포감금죄 등), ②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주거침입죄, 비밀침해죄 등), ③ 생명·신체에 대한 죄(살인죄, 과실치사상죄, 상해와 폭행의 죄, 유기죄와 낙태죄 등), ④ 명예와 업무에 대한 죄(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 등), ⑤ 재산에 대한 죄(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절도죄, 강도죄, 장물죄, 손괴죄 등)가 있다.

#### 1) 살인의 죄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단절시키는 다른 모든 범죄와 구분되는 범죄로 들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공정식, 2010: 232-234). 그 행위는 반드시 불법적인 것만은 아니다. 상해의 의향이 존재할 수 없는 우발급진적인 사고와 같이 용서가 가능한 살인행위(Excusable Homicides)도 있고, 이슬람의 일부 국가에서 가해자 스스로에게 살인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명예살인<sup>1)</sup>도 있는가 하면, 강도범이 도주하는 경우에 경찰관이 사살하거나, 자기방어를 위하여 사람을 죽이는 경우와 같이 죽일 의향이 있더라도 마침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당성이 가능한 살인행위(Justifiable Homicides)도 있다.

---

1) 명예살인(Honor Kill)이란 부족, 가족, 공동체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조직내 구성원을 다른 사람이 살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슬람국가처럼 여성에 대해 억압적이고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이며 관습이 통용되는 사회에서 주로 부모에 의한 자유연애, 강제결혼의 반대, 불륜의심이나 성폭행을 당해 정조를 잃은 여성들에 대한 살해형태로 나타나며, 가해행위는 부모, 오빠, 남동생 등에 의해 자행된다. 요르단 형법 m제 98조는 '상대의 불법행위가 분노를 일으켜 살인을 저지른 경우 감형을 허락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명예살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여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반면 터키에서는 2005년 이러한 명예살인에 대하여 무기징역 등 강력한 처벌규정을 실시한 이후 명예살인보다는 여성에게 자살을 강요하는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 이러한 명예살인을 종교적 영향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문이 있다. 실제로 이슬람에서는 모든 살인행위를 일체 금하고 있다.

미국의 FBI 2000년 이후 평균 공식통계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경우보다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살인범죄에 대해서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그것을 가장 강력한 범죄행위로 인정하는 이유는, 인간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생명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살인의 결과 초래되는 피해가 영원히 회복될 수 없을뿐더러 살인으로 인한 피해가족들에 대한 갖가지 엄청난 피해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살인행위에 대한 강하고 공격적인 일방적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연약한 피해자에게 동정심이 갖기 마련이다.

## 2) 살인죄의 법률적 규정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살인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로써 규정되어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성조각을 만족하는 행위로 범위를 정하여야 살인은 고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한다는 점에서 현행 형법은 ‘살인의 죄’라 하여 보통살인, 영아살해, 존속살해, 자살의 교사·방조, 촉탁·승락에 의한 살인,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살인예비·음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통살인은 가장 기본적인 규정으로써 살인에 관한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해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살인이 여기에 속한다.

이에 대한 구속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다.<sup>2)</sup> 존속살해<sup>3)</sup>는 존속의 관계에 있어서 비속이 고의 또는 우발적으로 존속을 살해하는 경우로서 이에 대한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아살해는 직계 존속이 분만중 또는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한 경우라고 하여 그 조건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 동기를 참작한 것을 특별감경 규정으로 하고 있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2) 살인의 공소시효를 보면, 한국과 러시아는 15년이고, 일본은 25년이며, 프랑스는 10년(단 수사 중일때는 시효중지), 이탈리아는 21년(다수살인 및 성범죄 동반한 살인은 시효없다), 독일은 계획적 살인은 시효가 없고 일반살인은 중대성에 따라 20-30년, 미국과 영국의 연방법 및 대부분의 주에서는 시효가 없다.

3) Linedecker는 존속살해의 동기를 4가지로 구분했는데, ①가정에서 성적 신체적 폭력을 당한자, ②악마승배나 잔인한 사이비 종교집단, ③반사회적 성격자이거나 정신질환자, ④물질적 탐욕으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이유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였다.

### 3) 살인관계의 형법상 규정

관련법	법조 및 죄명	개념규정
형법	제88조 내란목적 살인	국도를 참질하거나 국헌을 문란한 사람을 살해한자(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250조 제1항 살인	살인의 가장 기본적인 규정(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0조제2항 존속살해	존비속관계에서 비속이 존속을 살해하는 경우(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1조 영아살해	직계존속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 제 1항 촉탁·승락 살인	피해자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살해하는 경우(형량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
	제252조 제2항 자살교사 및 방조	사람의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형량은 전항의 규정과 같다)
	제253조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피해자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거나 자살 방조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위력을 사용하는 경우(위계 혹은 위력에 의한 것일 경우 일반 살인죄의 예에 의해 다스린다)
	제254조 살인미수	위의 모든 규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
	제255조 살인예비·음모	살인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한 경우(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301조의2 강간살인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는 범죄 중 살인의 고의에 의해 사람을 살해한 경우(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88조 강도살인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강도의 범죄 중 살인의 고의에 의해 사람을 살해한 경우	

특별법상의 살인규정으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살인·치사죄 등으로 특정범죄 기중처벌법 등이 있으며, 이는 본법에 더해서 가중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소법전, 2014: 형법편).

#### 4) 살인행위 범죄의 동기(공정식, 2010: 244~245)

일반적으로 범죄의 동기를 표출적(expressive)동기와 도구적(instrumental)동기로 그 동안 구분하여 범죄학 연구에서 사용되어 왔다. ① 표출적 동기들은 분노, 욕구불만, 등으로 계획되지 않는 행동들이다(Block & Christakos, 1995; Block, 1976; Decker, 1993, 1996; Siegel, 1998). ② 도구적 동기들은 명백한 미래의 목적들(사회적 지위나 돈을 얻는 것)을 이루기 위한 행동들이다. 표출적이나 도구적이나 하는 구별은 간혹 계획적인 범죄들과 무의식적인 범죄들 사이의 차이들과 유사하다.

##### (1) 표출적 동기

폭력으로 인한 주된 자극(Block & Christakos, 1995; Decker, 1996; Polk, 1994)인 논쟁, 낭만적 삼각관계, 사춘기적 집단의 살해, 말다툼(예: 청소년기 일진회나 갯 등) 이외의 대인간의 논쟁은 전형적으로 표출적인 행동들로 분류된다. 살해자체가 수단이거나 목적으로 이용되었더라도 이로 인해 구체적인 보상물이 불분명한 경우를 표출적동기로 볼 수 있다. 또한 비정상적인 살인행위도 표출적 범죄로 구분한다(예: 피해자의 무시, 학대, 모욕 등으로 가해자가 비판, 공포, 분노로 살해 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범법행위의 살해자체가 목적이 되며, 살해 후 원하는 구체적인 보상물이 없거나 예상되지도 않는다. 또한 우울증, 망상장애, 매 맞는 여성증후군 등의 정신질환자나 알코올·마약 등의 중독, 미신적 신념 등에서 살해한 경우도 보상물이 없거나 예상되지 않는다.

##### (2) 도구적 동기

처음부터 대부분의 강도 살인범들이 피해자들을 목격하고 의도적으로 살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Maxfield, 1989), 강도를 유발하는 행동들은 동기를 유발하는 도구적인 목표들에 의해 동기를 명확하게 부여받는다. 사춘기 집단에 의한 살인은 상황적이고 충동적이며 무의식적이고 기회주의적이다. 다시 말해 실용적이지 않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복수 또는 보복' 등의 살인들의 경우에는 표출적·도구적 이분법에 근거해서 명백하게 동기를 분류하는 것은 어렵다(Polk, 1994).

범죄목적이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살해라는 수단이 동

원되어 실제로 구체적 보상물(금전, 금품, 성욕충족 등)이 생겼거나 생길 것으로 예측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면, 도구적 동기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살인의 경우 살인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을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여 보상물을 구체적으로 획득하거나 예상을 갖었다면 이는 분명히 도구적 동기를 가진것이라 인정할 수 있다.(예: 강도나 강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한 그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살해한 경우, 또한 금전 금품획득과 성욕의 충족,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가족을 살해하는 등의 구체적인 보상물이 생긴 경우).

### (3) 정신분석학적 동기

오늘날 대부분의 정신분석학자들은 임상적 활동과 살인범에 관련된 연구 모두에서 Libido와 공격성이라는 욕동개념을 본능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일반적으로 욕동이 표면적인 문화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인간의 행동은 대개 내재화된 조절을 이미 대리자(초자아)의 영향을 받으며, 환경 및 자신과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Libido 충동과 공격충동(협력적이든 갈등적이든 간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이해된다. 또한 범죄행위는 개인에 내재하는 비정상적 감정조절 또는 성격특성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으로 보며, 발달심리학은 생물학적 요소를 강조하거나 성격에 초점을 두는 범죄학에서 적용된다.

현대 정신분석의 대가인 Klein은 그것을 자신이 세운 이론의 중심으로 삼았다. Mitchel의 이론에서 살인범을 설명하자면, 긴박한 파멸에 대해 박해불안을 느낀다는 점이다. 불안을 그들이 느낀다는 것은 자신의 미숙한 공격성이 자신을 파괴하는 세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살인은 사악한 외부 대상에게로 향하도록 만들어진 죽음 본능의 파괴적 힘의 무의식적 형태인 것이다(Mitchel, 2000).

### (4) 진화심리학적 동기(살아있는 범죄학, 공정식: 250~254)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①살인을 일종의 갈등의 산물로 생각하고 살인은 경쟁적 관계에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생한다고 보았다(Buss & Duntley, 2003).

② 부모의 존속살해인 경우 자식이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극단적인 갈등의 표출형태로 부모살해가 발생한다고 본다.

③ 배우자살해의 경우 지금까지 배우자 살해 및 폭행의 위험변수로 경험적 증거를 제 안되어 확보한 것들에 의하면, 아내의 연령(Shackelford 등., 2000 등), 의붓자식의 존재, 별거 및 이혼, 관계의 법칙 지위(Wilson 외, 1995),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친족의 밀도 (Figueredo 외, 2001), 부부간의 연령차(Daly & Wilson, 1988) 등이 있다.

④ 살인범죄에 대한 성차를 보면, 남성이 남성을 살해하는 이유는 번식 경쟁에서 퇴출 당할 위험이 큰 조건(실업이나 결혼 못한 상태 등)에 놓여 저 있기 때문이거나 동료집단 으로부터 지위나 평판, 명예의 손상을 입은 것을 보상 및 방어하기 위하여 성적 질투와 동성 간의 경쟁 때문에 살인이 발생한다.

⑤ 반면에 여성이 여성을 살해하는 경우는 남성에 비해 신체적 공격을 행사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파괴성이 적고, 덜 과시적이다(Campbell, 1995). 그러나 여성이 위험한 신체공격수준이 낮다고 해서 공격성이 없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경쟁자에 대한 언어적 공격성이 많으며 성적인 측면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경쟁자가 과거에 남자 친구가 많았고 문란하고 음란하며, 아무하고나 잠을 잔다고 모욕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에 대한 남성 폭력의 대부분은 배우자나 여자친구, 연인을 향한 것이며, 성적 질투가 중요한 원인이 된다. 성적 질투심은 배우자 살해에서도 결정적인 원인이 되며 남성이 여성을 죽이는 깊은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여성의 배우자 살해의 근원이 된다.

### (5) 성격심리학적 동기

성격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살인사건은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경우가 많다는 관점에서 살인범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문제점은 살인범의 성격적 특성이다(공정식: 254~257). 살인범의 성격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는 성격 연구들이 주류를 이룬다. 이러한 성격은 변화가능성이 적은 지속성을 갖는다(Walson, 2001). Megargee(1966)에 의하면, 가장 공격적인 집단을 두 개로 구분하였는데, 통제결합형과 과잉통제형 성격의 소유자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첫째, 외향적인 통제결합형은 분노에 직면하였을 때 상습적으로 자주 폭력행위에 연루 된다. 둘째, 과잉통제형(over control)은 그들이 화가 치밀었을 때나 좌절하였을 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주로 억제하는데 내향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정신병질이라는 개념이 반사회적 성격에 대한 대체개념으로서 형사정책 분야에서는 자주 언급된다.

이들은 자기중심성과 죄책감의 결여, 동정심과 수치심 부족, 애정능력의 부재 및 통찰력 부족,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능력의 부족, 피상적인 매력 등 구체적인 성격특성들을 정신병질의 판단 근거로 삼게 되었다. 그리하여 Hare(1991) 등은 유죄판결을 받은 연쇄강간범들 중 피해자를 죽인 강간범들의 35%~43%가 정신병질자 였다고 한다(김교현 외, 2005), 강간으로 인해서 일부 남성들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

### (6) 유전적 소양 동기

성격특성들은 대부분이 환경과 유전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sup>4)</sup> 반사회적 행동도 마찬가지로 정신병질적 특성 역시 유전적 소양이 있을 것이라 추정되며(이수정, 2010: 92~100), 이와 관련된 성격에 대한 쌍생아 연구를 보면<sup>5)</sup> MMPI 척도 중 Pd(반사회적 성격특성)와 여러 공격성 척도를 이용해 조사한 결과 일란성 쌍생아는 일치율이 .46에서 .57인 반면 이란성 쌍생아는 .18에서 .28인 것으로 나타났다(Goldsmith & Gottesman, 1996).

이런 연구들은 반사회적 행동이 유전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만 정작 15세 이하 품행 장애에 대한 연구를 보면 15세 이하의 경우에는 유전의 영향보다는 공통 환경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 13세 쌍생아 연구에서 보면 유전적 요소는 신경증에 영향을 미쳤으나 반사회적 증후군에는 미치지 않았고, McGuffin과 Thapar의 최근 연구(1997)에서도 공통 환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밝혀졌다. 청소년기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에 있어서는 환경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성인기로 접어들게 되면 유전적으로 소인이 있는 사람들은 점점 반사회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4) 이러한 예는 iq 검사 점수, 성격검사 상의성격, 정신분열증, 성격장애 등을 들 수 있다.

5) 표현형 즉, 성격차원(가령 외향성이나 신경증)은 유전자형과 환경의 영향을 받는데 일란성 쌍생아 경우 유전자와 공통환경을 100% 공유하거나 이란성 쌍생아는 유전자와 공통환경을 50%만 공유한다. 그러므로 두 집단을 비교해 보면 환경의 영향이 큰지 유전의 영향이 큰지 알 수 있다.

### III. 연쇄살인범죄의 현황에 대한 분석

#### 1. 연쇄살인범죄의 개념

연쇄살인의 용어는 1974년에서 1979년까지 약 30명의 여성들만 잔혹하게 살해한 Ted Bundy가 저지른 범죄를 지칭하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다(Simones, 2001). 이후 미국에서는 1970년대 다중살인(mass murder) 및 연쇄살인(serial murder)의 사건 발생률이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발생되었으며, 이러한 잔혹한 사건을 될 수 있는 한 빨리 해결하기를 바라는 여론의 압력을 받아 사건해결을 위해서 법집행기관들은 수사기법들을 모두 동원하였다(공정식, 2010: 269~273).

연쇄살인범죄는 각각의 범죄유형자들이 다양한 범죄의 원인 및 동기부여가 범죄들간의 동질성을 파악해내기가 매우 어려운 범죄유형이다(Mott, 1999). 그러나 최근 들어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 및 수사과학(investigative science)이 발달하면서, 연쇄살인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고 유형을 분석하여 이를 수사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발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를 수행한 것이 가장 먼저 FBI(미국 연방 법무부 장관이자 연방검찰총장 직속기관 연방수사기관)의 행동과학부(Behavioral Science Unit, BSU)<sup>6)</sup>였다.

#### 2. 연쇄살인범의 목적과 특성 및 특징

연쇄살인범들은 살인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심리적 생각기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변하며 살인을 멈추지 않고 검거 될 때까지 심리적 쾌락을 반복적으로 얻는다. 희생자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 승리감, 성적쾌감, 지배감 등 여러 가지

6) 1972년 버지니아주 콰인티코(quantico)에 위치한 FBI 아카데미 내에 행동과학부가 설치되었으며, 행동과학부에서는 범죄자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범죄자 프로파일링 대상 범죄자에 대한 연구, 전문 프로파일링 양성교육을 전담하거나 1990년대에 이르러 국립폭력범죄분석센터(NCAVC)가 신설되어 범죄신설분석센터(CIAP), 방화, 폭력사건수사서비스(ABLS), 폭력범죄자체포프로그램(VICAP)의 세부부서로 구성된 프로파일링 행동평가부(PBAU)로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Woodworth & Stephen, 1999; 권창국, 2002).

과위를 만끽하는 최고의 절정을 느낀다.

어린 시절에 겪은 신체적, 심리적 학대 그 자체가 연쇄살인의 원인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학대와 관련지어 나타내는 정서적 애착 발달의 미숙과 학교에서의 부적응, 적절한 대인관계 기술의 부재(은둔형 외톨이)와 사회적 고립 등의 복합적 요인이 함께 고려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시선이나 관심을 피해가는 능력이 있으며 후회나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또한 사회적 규범이나 양심에 압박을 받지 않으며, 기회주의적이고 실용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 환경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제압하기 쉬운 성매매, 노인, 가출여성들을 대상으로 한다.

살인범의 특징이라면 강호순, 정남규, 유영철 3명의 연쇄살인범들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psychopath), 즉 반사회적 성격장애인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코패스들의 특징은 타인의 고통이나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반성할 줄 모르며, 극도의 이기주의와 허풍, 과시, 자기중심적방식대로 과장된 영웅심리적 상황에 대한 과장된 심리를 평소에도 가지고 있다.

### 3. 연쇄살인범의 행위

살인은 영원히 생명을 제거한다는 점에 있어서 모든 다른 범죄와 구분되는 범죄로서 인간의 생명을 단절시키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이수정, 2010: 300~307). 그러나 그것이 불법적인 것만은 아니다. 우선 상해의 의향이 존재할 수 없는 우발적인 사고와 같이 용서 가능한 살인행위도 있으며, 도주하는 강도범을 경찰관이 사살하거나 시민이 본인의 방어를 위하여 사람을 죽이는 경우와 같이 죽일 의향이 없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당화가 가능한 살인행위(Justifiable Homicides)도 있다.

살인이란 극단적으로 심각한 행동이지만 살인의 동기는 의외로 사소한 다툼에 기인하여 발생한다는 것이며, 부부, 친구, 동료 등 친밀한 개인들 간의 사사로운 말다툼이 결국 생명을 제거하는 행위로까지 번질 수 있는 것이다. 감수성이 부족해서 감정의 폭이나 깊이 한계가 있다. 차갑고 냉정해 보이다가 갑자기 과격하게 변하거나 천박해지거나 감정을 마구 표현하기 일쑤이다.

또한 사이코패스는 행동에 대한 제어능력이 부족하며, 통제력이 약하며 극단적인 감정

폭발이 순간 일시적이며 사소한 일에도 부적절하게 화를 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금세 아무일도 없다는 듯이 태도를 취한다.

#### 4. 연쇄살인과 프로파일링)

가장 오래된 문헌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연쇄살인 사건은 프랑스의 귀족이었던 15세기 Gilles de Rais의 연쇄살인으로써 수백 명의 아이들이 강간, 고문 및 살해당했으며, 피해자에게 사후 강간을 하고 피해자의 손을 범행 이후의 성적 행위를 위해서 잘라두었다고 알려져 있다(이수정, 2010: 338~339). 또한 동 시대에 연쇄살인범인 Countess Elizabeth Bathbory는 어린 소녀들을 고문하고 살해하였으며, 자신의 피부 미용을 위해서 피해자들의 피로 목욕을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Myers, Burgess & Douglas, 1999). 이러한 연쇄살인범들은 당시 사회를 놀라게 하고 많은 관심이 되었지만 학문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단순한 정신 이상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 이르러 사회과학자들이 연쇄살인범죄로 관심을 두고(Mott, 1999; Egger, 1997; Hickey, 1997; Holmes & Holmes, 1998; Jenkins, 1994; Ressler, Burgess & Douglas, 1988), 이것은 범죄 발생의 질적인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하였다. 미국에서는 연간 35명 정도의 연쇄살인범에 의해서 약 5,000명의 피해자가 살해되고 있다고 하며, 일부 연구자들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의 1/3 정도가 연쇄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Holmes & Holmes, 1996).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연쇄살인 범죄의 발생률이 증가되기 시작하여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와 수사기법(범죄자 프로파일링)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해왔으며, 영국, 캐나다, 일본, 유럽 등의 국가에서도 연쇄살인에 대한 연구 및 연쇄살인 범죄에 대한 범죄자 프로파일링 기법의 개발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 7) 본장의 내용과 연관된 미디어 출처:

- KBS <차인표의 블랙박스> - 악마의 두 얼굴로, 연쇄살인범은 타고나(2002년 7월 28일 방영).
- <추적 60분> - 부친 어린이 살해사건, 누가 아이들을 죽였나(2004년 2월 18일 방영).
- 화성연쇄살인사건 D-11, 마지막 공개수배 (2006년 3월 22일 방영).
- KBS <스페셜> - 악의 가면, 사이코패스 (2005년 4월 10일 방영).
- MBC <PD 수첩> - 유명철 보고서, 거짓의 진실 (2005년 1월 18일 방영).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인간의 비극...살인...사형 (2006년 5월 13일 방영)

## 1) 피해자수와 공간적 특성에 의한 구분

### (1) 공간적 특성에 의한 구분

단일살인	한사건, 한 장소에서 1명의 피해자가 살해된 경우이다.
이중살인	한사건, 한 장소에서 2명의 피해자가 살해된 사건이다.
삼중살인	한사건, 한 장소에서 3명의 피해자가 살해된 사건이다.
고전적 다중 살인 (classic mass murder)	수초, 수분 혹은 며칠이 걸쳐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한 장소에서 한 사람에게 의해 일어나는 다수에 대한 살인사건을 말한다.
가족 다중 살인 (famil mass murder)	4명 이상의 가족이 한꺼번에 살해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때 가해자가 자살하는 경우에는 다중 살인/자살(mass murder /suicide)로 분류되며, 가해자가 자살하지 않는 경우만 가족 다중 살인으로 분류된다.

### (2) 공간적 특성에 의한 구분

연속 살인 (spree murder)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한 건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이며, 이 때 범피자는 심리적 냉각기(cooling off period)를 거치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1949년 9월 6일, 뉴저지에서 연속살인범인 Howard Unruh는 자신의 동네를 걸어 다니면서 이웃들에게 총을 발사하여 1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경우 범죄가 발생한 시간은 20여분에 불과하지만,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다중살인(mass murder)이 아닌 연속살인(spree murder)으로 분류된다.
연쇄살인 (serial murder)	3곳 이상의 개별적인 장소들에서 3건 이상의 개별적 사건들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이때 범피자는 살인사건을 행하는 동안 심리적 냉각기를 갖게 된다. 연쇄살인범은 범죄와 관련된 환상을 갖고 상세하게 범행 내용을 계획하고, 범피자는 마지막으로 저지른 살인으로부터 심리적 냉각상태가 지난 후 범행을 다시 저지른다. 이러한 냉각기간은 최소한 수일, 수주 혹은 몇 달이 될 수도 있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최소한 30일 정도의 심리적 냉각기가 나타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Douglas, Ressler, Burgess, & Burgess, 1992; Lester, 1995)

### (3) 동기에 의한 구분

Ressler, Douglas, Burgess와 Burgess(1992)의 동기에 의한 살인범죄의 분류는 살인 유형의 구분을 범행동기별로 하지는 않으며, 단 일반적인 살인범죄의 동기는 구분하고 있다. 살인범죄의 동기는 4개의 큰 범주와 24개의 하위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집단원인에 의한 동기, 성적동기, 개인적 원인에 의한 동기, 범죄적 이익을 위한 동기가 큰 범주에 해당된다. 연쇄살인의 대부분의 동기는 성적동기에 포함(Meloy, 2000; Beasley, 2004; Ressler, Burgess, & Douglas, 1988; Warren, Hazelwood, & Dietz, 1996)되나, 때로는 범죄자의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연쇄살인을 저지르기도 한다.

집단적 원인에 의한 동기	사이비 종교 등에서 종교적 의식의 하나로써 살인을 자행하는 경우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인질극을 벌이는 테러 등이 포함되며, 이 유형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살인과 유사하지만 집단적 차원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구별 된다
성적 동기	개인적 동기에 해당될 수 있는 범위이지만 살인에 있어서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독립된 하나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개인적 원인에 대한 동기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동기에 의하여 살인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원한, 치정, 극단적 가치관 등에 의한 살인이 포함된다.
범죄적 이익을 위한 동기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나 혹은 갇힌 공간의 갈등이나 경쟁과 같은 한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포함된다. 몸값을 받아내기 위한 유괴살인이나 한국에서도 간간히 발생되고 있는 보험금을 노리는 살인사건 등이 이에 해당된다.

### (4) 연쇄살인범의 특성

연쇄살인범의 아동기	연쇄살인범들은 어린 시절의 학대 경험으로 인하여 적절하게 방어기제를 발달시키거나 사용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이유로 학교나 사회, 직장에서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따라서 자신이 속해있는 환경에서의 부적응으로 인하여 적절한 청소년기의 발달단계를 거치지 못하게 된다. 그리하여 또래들과 어울리는 대신에 자기만의 세계에 집중하게 되어 여러 가지 환상을 키워나가게 되며,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의 환상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Simons, 2001; Gerdes, 2000; Lester, 1995).
------------	--

피해자 선택	연쇄살인범들은 피해자의 유형을 자신들이 선택한다. 연쇄살인범은 스스로 피해자를 선택하고 범행의 장소와 과정을 계획하며,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살인을 하지 않기도 한다.
공간적 이동성	특정 장소에서 범행을 하는 살인범(place-specific killer)과 지리적으로 이동적인 살인범(traveling killer/interjurisdictional killer)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특정 장소에서 범행을 하는 살인범은 오직 한 곳에서만 살인을 하는 유형이며, 이동성 살인범은 많은 州 및 지역에 걸쳐서 살인을 저지르는 유형이다. 특히 시체의 유기 장소와 피해자 납치 장소가 다를 경우에 시체를 유기하는 위치가 납치하는 위치보다 범죄자의 거주지를 더욱 잘 예측해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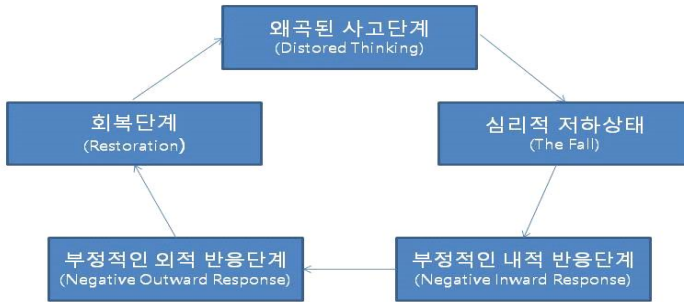
(5) 연쇄살인의 단계

① 환상	연쇄살인범들은 지속적인 상상을 통하여 폭력적인 충동을 키우고, 이를 계속 강화시킨다. 이들은 상상을 통하여 자신의 피해자를 비인간화시키고, 자신이 왜곡되게 만들어낸 도덕관을 적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합리화시키는데 과정을 거친다. 상상이 계속 정교해지면 이것을 현실에서 시행해보고자 하는 욕구도 더욱 커지게 되고 상상만으로 얻게되는 만족감이 점점 감소되게 되어 상상의 폭력을 현실에서 실행하기 위해 준비하게 된다.
② 피해자의 물색(스토킹)	범행을 저지르기에 적합한 피해자를 학교, 이웃 혹은 직장에서 물색하고 적절한 대상이 선택되면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기로 결심하게 된다.
③ 유괴	범행을 실행하면서 피해자를 비인격화하고 마치 해충처럼 여기게 된다. 범죄자는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이유들을 스스로에게 만들어 낸다. 현실에서의 범행의 실행은 단지 범죄자가 상상을 통해서 했던 모든 것들을 재현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실에서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④ 살해	범죄자는 자신이 상상한 것들 중에서 자신의 만족을 가장 크게 해주는 방법을 선택하여 범행을 저지르며, 범죄자에게는 피해자의 깊은 고통과 절망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자극이 된다.
⑤ 시체의 유기	시체를 처리할 때 보이도록 전시하는지 혹은 수사관들이 발견하기 어렵도록 숨기논지의 여부도 범죄자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피해자의 시체를 보이도록 전시하는 경우는 자신의 범죄 경력을 광고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출처: Holmes & Holmes, 1996.

## (6) 연쇄살인의 심리적 순환단계

- ① 왜곡된 사고단계 : 왜곡된 사고단계는 결과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보상만을 추구하는 심리적 단계이다. 이것은 연쇄살인범죄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어느 정도의 왜곡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② 심리적 저하상태 : 평상시 일상생활의 도중에 어떤 사건의 계기가 되거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리적 저하상태로 빠지게 되는데, 이 단계는 외부의 자극이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에 관계없이 자극에 대한 반응이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단계이고, 절대 이 단계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 ③ 부정적인 내적 반응의 단계 : 연쇄살인범들은 독단성과 타인에 대한 우월성을 가지며, 범죄자 본인이 너무나 중요해서 무시당하거나 열등아처럼 취급받아서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게 된다.
- ④ 부정적인 외적 반응의 단계 : 본인만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던 타인에 대한 우월성과 독단성이 행동으로 표출되게 되고, 더 이상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게 된다. 혼자의 상상 속에서만 실행했던 범죄를 실제로 저지를 결심을 하게 되고 범죄의 피해자를 물색하여 스토킹하고 유괴하기에 이른다.
- ⑤ 회복의 단계 : 본인의 행동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심리적 여유를 되찾게 되고, 피해자를 신중하게 다루어 본인의 안전을 최대화하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본인이 겪을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다. 이때가 '심리적 냉각기'가 된다.



출처: Holmes & Holmes, 1996.

출처: 연쇄 살인범의 심리 기재, 1996.

## 2) 국내·외국의 연쇄살인범죄에 대한 분석

### (1) 국내 연쇄살인범죄의 사례 분석

#### ① 김대두의 11명 연쇄살인범(대한민국의 최초 희대의 연쇄살인)

김대두는 당시 25세 폭력 등 전 과 2범 3개월 전 7월에 광주교소에서 출소하였다. 김대두는 1975년 8월 13일부터 10월 5일까지 55일 동안 무려 17건의 살인사건을 저지른 흉악한 살인마이다. 1975년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일주일사이에 경기도 평택, 양주, 시흥, 수원 등 4개지역의 시골 외딴집에서 일가족이 참혹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공정식, 2010: 275~287).

25일 자정 무렵 평택군 송탄읍 외딴집에서 70대 할머니와 어린 손주 3명 등 4명 피살(둔기로 가격을 당해 머리와 안면부가 거의 함몰된 상태 손녀 11세는 야간에 발견되었는데 양손이 결박당한 채 나무에 묶이고 보자기로 얼굴을 찌웠다), 27일 새벽 양주군 구리읍 외딴집에서 40대 부부와 세 살짜리 아기 피살, 10대 자녀 둘 중상, 30일 초저녁 시흥군 남면 외딴집에서 20대 엄마와 갓난아기가 피살당했으며, 10월 2일 새벽 수원시 우만동 외딴집에서 30대 부부역시 피살 등 총 11명이 살해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것이다.

## ② 순경 우범곤의 56명 최악 연쇄살인범 총기 난사 사건

청와대 경호원으로 근무하다 진급도 못하고 불만이 가득찬 1982년 4월 26일(경남 의령군 공유면 지서 근무) 당시 우순경은 술버릇이 나빴고 내연의 처와 다투던 흥분 상태에서 오후 9시 30분 예비군 무기고에서 카빈소총 2정, 실탄 129발, 수류탄 6발 들고, 가장 먼저 우체국 전화교환원 2명(외부와 통신을 두절)을 사살 후, 미친 듯이 4개 마을을 불이 켜진 집을 무조건 찾아다니며, 무차별적으로 주민들을 총과 수류탄을 터뜨려 56명 숨졌고, 34명이 중경상을 입히는 최악의 경찰관들의 망신거리가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생우 1주일된 아기와 70이 넘는 노인이 사망하였다. 이로 인한 경찰관 총기 사용 금지령의 발판이 마련하였다.

## ③ 화성 10명 연쇄 성폭행 살인범죄 사건

2006년 4월 2일은 한국 범죄수사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날이었다. 1986년부터 5년간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일어난 10건(화성일대 부녀자 10명이 연쇄성폭행 뒤 피살. 15년 동안 10대~60대 여성이 희생당함)의 끔찍한 강간 살인 사건은 ‘살인의 추억’만 남긴 채 이날 이후 역사의 기록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 마지막 10번째 사건도 15년이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 날로부터 20년간 200만 명이 넘는 수사 인력이 동원됐지만 범인은 오리무중이었다. 우리가 이러한 엄청난 사건을 역사속으로 묻고 있는 동안 범인은 어디선가 수사력을 조롱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 ④ 지존파의 연쇄살인범죄 사건

지존파 살인사건(표창원, 2009: 202~205)은 1993년 4월부터 9월까지 엽기적인 살인 사건은 김기환(26세)강간치사 1범, 강동은(21세)특수절도 2범, 김현양(22세)상해 1범, 문상록(23세)특수절도 3범, 백병옥(20세)특수강도 2범, 강문섭(20세)전과없음, 이들은 같은 전과자라는 공감대와 무협 소설, 홍콩 액션 영화를 좋아한다는 공통점, 그리고 불우한 환경을 비판하며 가진 자들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다는 사실에 의기투합하여 자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헌탕’을 모의하기로 이르렀다. 나이가 많은 김기환이 두목이 되면서 그가 좋아하는 홍콩영화 <지존무상>을 본떠 조직의 이름을 지존파라고 정했다. 그리고 부하들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가혹하게 훈련시켜 절대 복종하도록 만들었다.

1차 범행(살인실습, 93년 7월) : 조직결성 직후 충남 논산에서 피살자 최미자(21)를

납치, 윤간하고 목 졸라 살해 후 암매장하는 등 납치살인 예행연습을 하였다.

2차 범행(배신한 조직원 살해, 93년 8월) : 조직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피살자 송봉우(18)를 단검으로 온몸을 찔러 고문, 곡괭이로 머리와 등을 내리쳐 살해 후 암매장하였다. 그 후 김기환(25)이 강간치상혐의로 구속되자 강동은(21)이 새 리더로 철창 및 시체 소각로를 설치하였다.

3차 범행(커플 납치·살해, 94년 9월) 가스총으로 실신 시킨 후 납치, 이양(27, 여)을 집단으로 폭행한 뒤 이씨(35, 남)와 함께 철창에 감금한 후 이씨가 돈이 없다는 것을 알자 결국 살해하게 된다.

4차 범행(중소기업대표부부 납치·살해, 94년 9월) : 납치 후 철창에 감금하고, 신분 확인 후 몸값 1억원 요구하였지만 8천만 원만 받았다. 증거인멸을 위해 죽이기로 결심하고 전 사건 이양을 이용해 소씨(42, 남)를 공기총으로 살해하기로 하고, 부인 박씨(35)는 칼로 난자 후 도끼로 내리쳤다. 부부시체를 토막 낸 후 소각하고, 일부 조직원은 담력을 키우기 위해 인육을 입에 대기도 하였다.

5차 범행 미수 : 서울 모 백화점에서 고액 쇼핑을 한 부유층 고객 150여 명의 명단 확보하여 살인을 계획하였으나 검거되는 바람에 착수하지 못하고 미수사건에 그쳤다. 결국 지존파는 1995년 11월 2일 6명 모두 사형이 집행되었다.

#### ⑤ 유영철의 21명 연쇄살인범죄 사건

유영철은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10개월 동안 서울지역에서만 주로 21명을 연쇄적으로 살해한 엽기적인 연쇄살인범이다. 그는 부유층에 불만과 1991년 결혼이후 2002년 5월 부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제기해 부인에게 이혼을 당한 뒤 복수심을 느낀 여성에 대한 배반과 혐오증 때문에 칼이나 망치 등 잔혹한 방법을 이용해 살인을 저질렀다. 유영철의 첫 번째 살인은 2003년 9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단독주택에서 대학교 명예교수인 부부 살인사건이다. 이후 2004년 7월까지 10개월 동안 공식적으로 확인된 숫자만 총 21명을 살해했다. 여성들은 모두 살해해서 토막 낸 후 유기했다는 이야기에 눈시울이 적시곤 하였다. 결국 유영철의 연쇄살인은 권력형 연쇄살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경제적 궁핍으로 강제이혼을 처에게 당하였다. 그리하여 부유층에 대한 연쇄살인을 하게 되었다.

## ⑥ 정남규의 13명 연쇄살인범죄 사건

1969년 3월1일 전북 장수군 출생. 2009년 11월22일(40세) 의왕시 포일동에서 자살. 범행동기는 쾌락살인. 2004년 2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약 2년 2개월 동안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며 총33명(사망 13명, 중상 20명)의 사상자를 낸 연쇄살인범이다. 최고의 싸이코패스 정남규는 3남 4녀중 장남으로 태어나 불유한 유년기로 지냈다.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에 경제력이 없어 어머니가 돈을 벌며 키웠다.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으로 자라게 되었다.

이후 학교에서는 친구와 선배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하고 군복무 기관에도 동료와 고참에게 구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한다. 정남규는 사회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돈이 필요한 것도, 특정인에 대한 원한이 있던 것도 아니라 그저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불만과 욕구 불만 이었다. 범행에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체육복에 운동화로, 심지어는 속옷을 입지 않는 최소한의 가벼운 복장으로 쇠파지와 파이프렌치를 신발주머니에 담고 휴대하여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다.

정남규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군복무시 성폭행을 당했고, 살인행위를 저지를 때에도 정상적인 강간은 해보지 못하고 구강에 의한 성교를 강요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져보지 못하고 여성들에 분노로 인하여 연쇄살인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⑦ 강호순의 7명 연쇄살인과 100건의 성폭행 사건

강호순은 충남 서천군 출신으로 2006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2년에 걸쳐 경기도 서남부 일대에서 여성 7명이 연쇄적으로 실종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처음에는 연쇄살인을 부인하다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군포 여대생을 포함한 7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하였다. 살해했다고 밝힌 부녀자는 노래방 도우미 3명, 회사원 1명, 주부 1명, 여대생 2명, 추가로 2006년 9월 강원도 정성군청 공무원 윤모씨(23세, 여)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강호순은 2005년 10월 30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장모가 살고 있는 집을 방화하여 전처와 장모를 살인하였으나 본인은 부인하였지만 결국 혐의가 인정되었다. 한편 강호순은 2007년 4월 경 전처 명의로 든 4개 보험에서 4억8천만 원을 수령하였다.

2006년 9월 7일 걸어서 출근하던 정성군청 여직원 윤모(당시 23세)씨를 강원도 정성군 정성읍 애산1리 애산2교 입구에서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하고, 영월군 영월읍 일명 삼옥재 13번 군도 옆 동강변 절벽아래에 시신 유기하였다. 2006년 12월 14일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노래방에서 배모(당시 45세)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하고, 화성시 비봉면 비봉1C인근 39번 국도변 에 암매장하였다.

2006년 12월 24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노래방에서 박모(당시 36세)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스타킹으로 목 졸라 살해하고, 안산시 상록구 사시동 야산에 암매장하였다. 2007년 1월 3일 경기도 화성시 신남동 버스정류장에서 박모(당시 52세)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한 후 스타킹으로 목 졸라 살해하고,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야산에 암매장하였다.

2007년 1월 6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노래방에서 만난 중국동포 김모(당시 37)씨를 유인해 여관에서 성관계를 맺은 뒤 차량으로 이동해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하고, 화성시 마도면 고모리 공터 경사면에 암매장하였다. 이후 공터는 복토 후 골프장으로 조성되었다.

2007년 1월 7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버스정류장에서 여대생 연모(당시 20세)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한 후 타이즈로 목 졸라 살해하고,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황구지 천변에 암매장하였다. 2008년 11월 9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버스정류장에서 김모(당시 48세)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스타킹으로 목 졸라 살해한 뒤, 안산시 성포동 야산에 암매장, 2008년 12월 19일 군포시 대야미동 군포보건소 앞 버스정류장에서 여대생 A(당시 21)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스타킹으로 목 졸라 살해하고, 화성시 매송면 원리 공터에 암매장하였다.

결국 강호순의 경우에도 살인을 함으로써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관계 후에 살인을 했다는 점에서 쾌락형 연쇄살인범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강호순의 경우에는 과도한 성욕구로 인하여 강간을 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연쇄살인을 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강호순은 증거인멸형 연쇄살인범으로 생각하는 것도 무방하다.

## (2) 외국의 연쇄살인범죄의 동기

살인의 동기는 격세유전, 뇌손상, 아동학대, 어머니에 대한 증오, 나쁜 씨앗, 열등한 유

전자, 불량서적, 포르노그래피, 이득, 모방법, 악마의 소행 등 대개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며, 세상과 차단된 그들은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든다(해럴드 셰터 / 김진성 옮김: 311~352). 어느 순간이 되면 환상을 현실로 옮겨놓는다. 타인을 잔인하게 다름으로서 오르기슴에 가까운 희열을 맛보는 것이다.

연쇄살인의 이유에 대한 지그문드 프로이트 천재는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이 되고, 또 다른 식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개인의 삶이 전개되는 과정에는 많은 변수와 알 수 없는 요소들이 작용하므로 살인의 동기에 관하여는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 연쇄살인의 궁극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아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와 관련된 오랜 세월동안 다양함 이론들이 제기되었다. 그중 일부는 믿기가 힘든 것이고, 또 의심스러운 것도 있다. 비록 안전하고 최종적인 설명은 아니지만 제법 여전히 타당한 것도 있다.

#### ① 격세유전(Atavism)

격세유전이란 고대조상의 특질이 현대에 되살아나는 것을 말한다. 일부 연쇄살인범죄자들에게서 격세유전적인 특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들의 통제되지 않는 야만성은 마치 그들이 살인 풍습, 인신공양, 혹은 그와 유사한 야만적인 관습들이 만연하던 원시시대 세상에서 온 존재들로 여겨진다. 일부 요즘 정신병자들에게 나타나는 끔찍한 환상은 정확히 이러한 격세유전적 특성과 일치하다 할 것이다. 그들은 어린 시절에 마땅히 받아드려야 했을 도덕, 감정, 양심을 전혀 습득하지 못했을 것이다.

#### ② 뇌 손상

최근에 흥미로운 사실이 연쇄살인범들이 어린시절 심각한 머리부상을 당한 사례가 유난히 많다는 것이다. 첫째, 1920년대 악명 높은 고릴라 살인자로 거의 20명이 넘는 사람들을 목 졸라죽인 미국의 얼 레너드 벨슨은 10세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전차와 부딪쳐 근 1주일동안 혼수상태에 빠졌다. 1927년 살인재판에서 변호사는 벨슨의 살인행각은 어릴 때 끔찍한 사고를 당한 것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쇼크로스는 뉴욕주 북부지방에서 매춘부를 있따라 살해하고, 그들의 신체 일부를 먹어치우기도 하였다. 그는 젊은 시절 최소 네 번 이상 머리부상을 입었으며, 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있으며, 측두엽에 낭포가 생기기도 했다.

셋째, 보비 조 롱은 어릴 때 다양한 머리부상으로 네 차례나 병원신세를 졌으며, 여성을 연쇄적으로 9명을 살해하였고, 20대 초반에는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자동차와 부딪치면서 헬멧이 찌그러질 정도였다. 더구나 연쇄살인범죄들의 성장환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정신병리적 증상에 영향을 준 다른 요소들이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요컨대 뇌 손상을 입은 전력도 있지만 성장하는 동안 충격적일 만큼 학대를 받아왔으며 그로 인한 정서적, 심리적 손상이야말로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 ③ 환상

1899년에 발간한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에서 정숙한 인간은 꿈꾸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사악한 인간은 실천에 옮긴다는 플라톤을 인용하였는데 아무리 윤리적이고 고결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깊은 무의식 속에서는 금지된 행위에 대한 환상, 즉 잔인한 욕망과 원초적인 폭력성에 대한 환상이 숨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예를들어, 그들에게는 폭력과 강간 잔인한 행위에 대한 꿈속의 기억은 단순히 악몽만이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기억은 공상의 소재가 될 것이며, 예쁘장한 소녀를 보면 납치하고 성적으로 고문하고 토막살인을 행하는 공상에도 빠질뿐더러 실제의 혹은 가상의 모욕마저도 활용해서 가장 가학적인 형태의 복수를 끔찍한 상상과 환상이 결정에 달할 무렵 더불어 자위를 할 것이며 바깥에 나가서 범행을 시도할 것이다.

또한 13세의 제시 하딩 포메로이가 1872년에 어린아이 둘을 토막 살해한 이유는 불량서적, 불온한 영화, 저속한 비디오 등으로 하여금 범행동기방법을 숙지해 얻어 자행한 것이다. 물론 지금도 연쇄살인사건이 발생할 때면, 범인의 읽고 듣고 보는 습관들이 면밀히 조사가 되지만 싸구려 소설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도 필요하다.

### ④ 연쇄살인범죄의 유형

연쇄살인범은 권력형, 쾌락형, 사명감형, 망상형의 네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권력형이다(최용열·성용은, 2006). 권력형은 대상자의 삶과 죽음자세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정복감과 권력욕구를 충족시키기위해 연쇄살인을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고문을 가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후 살해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쾌락형이다. 쾌락형은 살인을 함으로서 성적쾌락을 만족시키거나 스티븐감을 느끼기 위해서 연쇄살인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목을 졸라 상대방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성적만족과 쾌락을 느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사명감형이다. 사명감형은 자신의 신념체계의 기준이나 비추어 옳지 않는 일을 하는 집단이나 사람을 연쇄살인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사기군을 변호하여 돈을 버는 변호사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살해한다거나 게을른 사람이 구걸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연쇄살인을 하는 경우이다. 네째는 망상형이다. 망상형은 환각이나 환청, 망상에 의해서 연쇄살인을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살인을 하라는 소리를 하늘로부터 들었다. 또는 신의 계시가 있었다. 고 하면서 연쇄살인 정당화하는 경우 등이다.

#### IV. 연쇄살인범죄의 근절방안

치안행정과 정책은 사회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사전 범죄행위를 차단할 뿐더러 국민의 삶을 추구하는 핵심적인 과제이다. 사회학습이론 역시 인간의 행위는 기쁨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도록 조직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인간의 모든 행위와 그에 따른 정의는 학습된다고 한다. 범죄 살인행위 또한 다른 행위와 마찬가지로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강화를 통해 전달 학습된다. 범죄살인행위는 개인의 하위문화환경에서 사회적 정의와 물질적 보상을 통해 차별적으로 강화된 행위이다.

따라서 개인이 가난할 때 범죄행위는 그것 자체의 보상에 의해 유지된다고도 할 수 있다(Frank & Marilyn, 2004). 사회학습이론은 타인의 어떤 행동에 대한 보상이나 처벌을 보고 모방을 통해 그 행동을 학습한다(공정식, 2010: 320). 범죄행동을 어떻게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을까요? 과거 현재까지만 해도 살인범죄는 무한정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미래 인간의 행복된 삶을 무참히 짓밟고 가정을 파괴할 주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살인범죄의 형태는 절반은 순간적인 흥분에 의한 것이고, 절반은 계획적인 것에 의한 것이다.

순간적인 흥분에 의한 살인범인은 자기 통제력이 약하고 인내심이 약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계획적인 살인범죄의 주요 원인은 가정의 내력과 인명경시풍조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이준걸, 2000: 334). 이에 관한 경찰의 치안행정정책은 범죄예방효과, 사회환경, 개인가정환경, 범죄예측활용 등에서 살인범죄에 대한 범법행위를

찾고자 하고 일반적인 사전 예방차원에서 어린 소년소녀시절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범죄행위에 대한 일상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 V. 결론

지나간 범죄라 할지라도 다시 한 번 사고의 경위를 분석할 만한 연쇄살인 범죄이기에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이 논문 취지다. 그동안 치안행정이 소홀하고 아니한 생각으로 생활을 영위하다 보면, 뒤늦게 사건이 확대되어 불안과 공포에 접하게 된다. 살인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멸시하고 어느 범죄보다 파괴적인 심각한 인간 본능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인간은 사회와 문화적인 요인을 통해 개인의 심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사료되며, 일상생활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아동의 어린 시절부터 문제아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사전에 인성교육과 가정의 정서적인 환경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치안 범죄의 정의와 살인의 일반적인 개념 및 특징을 이해하고 살인범죄의 현황과 원인의 형태 그리고 대책방안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사이코패스는 유년기시절부터 심각한 문제행동을 남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예컨대 거짓말, 무단결석, 급우 괴롭히기, 도둑질, 공공시설 파괴, 교실에서의 파괴적인 행동, 가출, 이른 성행위, 자기주장만 옳다고 이기주의적인 생각, 약물남용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치안의 연쇄살인범은 ①망상형(환청이나 환각: 신의 계시가 있었다는 등 살인을 정당화하는 경우), ②사명감(자신의 기준이나 신념체계에 비추어 옳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이나 집단을 연쇄 살인하는 경우: 사기꾼을 변호하여 돈을 버는 변호사, 게으른 사람이 구걸하는 등), ③쾌락형(살인을 함으로서 성적쾌락 만족을 느끼는 경우: 목을 졸라 죽어가는 모습이나 칼이나 몽둥이로 인해 처참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적만족을 느끼는 경우), ④권력형(삶과 죽음자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정복감과 배신감 등 권력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인하는 경우: 고문을 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후 살해하는 경우이다).

현대사회에 무동기적인 치안의 살인범죄가 전혀 예측할 수 없이 증가하고 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인간성(인성)의 상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병리현상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며, 초기에는 가정의 교육과정과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 갈등의 현상이

복합적으로 범죄의 원인을 야기하는 등 사회 계층에 대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 더 이상의 범죄가 될 수 없도록 상호간 아낌없는 노력과 범죄분석시스템을 강구하여 차원 높은 수사기법을 개발되어 국민의 안도감과 치안범죄행정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I. 단행본

- 김득중. (2006). 『실천예절개론』, 파주: 교문사.
- 김일수 서보학. (2009). 『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 김정철. (2003). 『형법술루선』, 서울: 문성.
- 김충남. (2008). 『경찰수사론』, 서울: 박영사.
- 공정식. (2010). 『살아있는 범죄학』, 서울: 머무리닷컴.
- 로버트 D.헤어/조은경·황정하 역. (2005). 『진단명 사이코패스』, 서울: 바다출판사.
- 박상기. (2010). 『형사정책』, 서울: 피알앤북스.
- 배중태. (2003). 『형사정책』, 서울: 홍문사.
- 이수정. (2010). 『최신범죄심리학』, 서울: 북카페.
- 이영란. (2011). 『형법학』, 서울: 형설출판사.
- 이웅역. (2005). 『연쇄살인범에 대한 범죄심리학적 분석』, 용인: 치안정책연구소.
- 이재상. (2010). 『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 이재상. (2011). 『신형사소송법』, 서울: 박영사.
- 임준태. (2009). 『범죄예방론』, 서울: 대영문화사.
- 임창호. (2004). 『범죄수사론』, 서울: 법문사.
- 전돈수. (2008). 『범죄학개론』, 파주: 21세기.
- 정영일. (2006). 『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 표창원. (2005). 『한국의 연쇄살인』, 서울: 랜덤하우스중앙.

표창원. (2009). 『한국의 연쇄살인』, 서울: 랜덤하우스.

헤럴드 세터/김진석 옮김. (2007). 『연쇄살인범 파일』, 서울: Human & Books.

## II. 논문

강지남. (2005). “한국의 연쇄살인범 동기분석”, 『주간동아』, (서울: 동아일보사).

고영중. (2004). “살인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수정. (2009). “연쇄살인범의 심리학적 기제”, 『수사연구』, 서울: 수사연구사.

이승묵. (2005). “다수 살인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이은영. (2004).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어린시절”, 『월간조선』, 서울: 조선뉴스프레스. 이웅혁 (2004). “유영철을 통한 연쇄살인범의 심리분석”, 『수사연구』, 서울: 수사 연구사.

최응열·성용은. (2006). “연쇄살인범의 범죄심리학적 분석” 『사회과학연구』, Vol. 13, No.1.

최병일. (2008). “강력범죄의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 Study on Psychological Causes and Countermeasures of Serial Murder Crimes

Choi, Yong-seok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urder on daily life. After examining the process and actual situation of murder, based on the theory that murder is a major deterrent to crime in order to control and prevent crime. Human beings, regardless of gender, are living in the hope of a happy life, a career in a good environment, economic stability, and success in the future when they are born, resembling a good heart and the heart of their parents.

However, those who are not prepared to pursue these happy lives are neglected in their effort, and the tendency of the golden universalism and egoistic tendency to lose their innocence, the innermost of their innocence. It is a phenomenon that gradually goes into the temptation of crime in order to solve the shortage of oneself without being able to adapt to society.

In order to prevent the early arrest and recurrence of murder crimes, it is being considered as a serious task for the police organization in charge of investigations as well as in the government security administration. The police, which is the core of public security, can be meaningful because it carries out the people 's expectations for the prevention of crime.

Murder crimes arising from personal and social circumstances are increasing day by day and are social ills that can not be cured forever by victims, such as robbery or rape.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and arrest murder crime, the speed of punishment must be preceded by a psychological analysis. Also, the special recruitment and special investigation for investigative police should be preceded.

**Key words:** definition of crime, characteristics of criminal, analysis of serial murder activity, Serial murder eradication plan, Professional investigation reinforcement.

논문접수일자: 2019년 04월 13일,      논문심사일자: 2019년 06월 05일,  
게재확정일자: 2019년 06월 15일

최용석	e-mail : cks4035@naver.com
-----	----------------------------